한국축구대표팀 최종 명단 확정

카타르월드컵 출전 명단에 손흥민 · 이강인 포함 총 26명
K리그 전북현대 선수로 조규성 · 송민규 · 김진수 등 출전
14일 출국… 24일부터 우루과이 · 가나 · 포르투갈 순 조별리그

손흥민(토트넘)이 안와골절 부상을 딛고 2022 카타르월드컵에 출격한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지난 12일 오후 1시 종로구 광화문 교보생명빌딩에서 발표한 카타르월드컵 최종 명단 26명에 손흥민의 이름이 포함됐다.

손흥민은 지난 2일(한국시간) 마르세유와 2022~2023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상대 선수의 어깨와 얼굴이 세게 충돌해 눈 주위 뼈 네 군대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당했다.

4일 수술을 받은 이후, 회복 중이다.

손흥민은 앞서 "단 1%의 가능성만 있다면 그 가능성을 보며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앞만 보고 달려가겠다"고 출전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2014 브라질월드컵, 2018 러시아월드컵에 이은 세 번째 월드컵 출격이다. 하지만 부상 정도가 심하고, 수술 이후 경과가 정확히 전해지지 않아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한국 축구의 미래'로 불리는 이강인(마요르카)도 승선했다.

이강인은 지난해 3월 한일전 이후 벤투 감독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 지난 9월 A매치 2연전을 위한 소집을 통해 다시 A대표팀에 합류했지만 역시 출전 기회를 잡지 못했다.

이 때문에 벤투 감독의 구상에서 '이강인은 없는 것 아니냐'는 말이 많았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태극마크를 달게 됐다. 이강인의 첫 월드컵이다.

손흥민, 이강인 외에 황희찬(울버햄튼), 황인범, 황의조(이상 올림피아코스), 정우영(프라이부르크), 이재성(마인츠)까지 유럽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이 대거 선발됐다.

이번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A에 진출해 나폴리의 막강 수비를 책임지고 있는 김민재(나폴리) 역시 이름을 올렸다.

김민재는 페네르바체(튀르키예)를 거쳐 이번 시즌부터 이탈리아 무대에서 활약 중이다. 빠르게 적응하며 지난 9월 세리에A 이달의 선수에 선정됐다.

올해 K리그1(1부) 득점왕 조규성(전북)은 황의조와 함께 공격수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또 전날 아이슬란드와 평가전에서 A매치 데뷔골을 터뜨린 송민규(전북)를 비롯해 나상호(서울), 권창훈(김천)이 포함됐다.

허리 라인에선 정우영(알사드), 손준호(산둥 타이산), 백승호(전북)가 힘을 보탠다.

김민재와 김영권(울산)이 중앙 수비에서 호흡을 맞출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권경원(감바 오카사), 조유민(대전)이 함께 카타르로 향한다. 전날 평가전에서 부상을 입은 박지수(김천)은 포함되지 못했다.

또 좌우에선 김진수(전북), 홍철(대구), 김태환(울산), 윤종규(서울), 김문환(전북)이 명단에 올랐다.

부상으로 정상적인 훈련을 소화하지 않았던 김진수의 이름이 눈에 들었다. 김진수는 과거 두 차례 월드컵에서 대회 직전에 부상을 당해 월드컵에 가지 못했다. 첫 월드컵이다.

골키퍼는 김승규(알샤밥), 조현우(울산), 송범근(전북) 3명이다.

벤투호는 월드컵 H조에서 포르투갈, 우루과이, 가나와 16강 진출을 다툰다.

14일 카타르로 향하는 태극전사들은 한국시간으로 24일 오후 10시 우루과이, 28일 오후 10시 가나, 12월 3일 포르투갈과 차례로 상대한다. 유럽에서 활동 중인 선수들은 카타르 현지에서 합류한다.

한편, 코칭스태프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최종명단과 별도로 27번째 선수로 공격수 오현규(수원)를 데려가기로 했다. /뉴시스

손 씻기 · 실내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하세요.

KCC는 지난 12일 전주체육관에서 열린 2022~2023 SKT 에이닷 프로농구 정규리그 DB와 경기에서 88-73으로 승리했다. 라건아(사진 왼쪽)는 21점 21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을 기록, 승리의 중심에 섰다.

라건아 21점 21리바운드

전주 KCC, 2R 가볍게 출발

프로농구 정규리그 원주DB와 홈경기서 88-73로 완승

프로농구 전주 KCC가 원주 DB를 꺾고 2라운드를 가볍게 출발했다.

KCC는 지난 12일 전주체육관에서 열린 2022~2023 SKT 에이닷 프로농구 정규리그 DB와 경기에서 88-73으로 승리했다.

비시즌 자유계약(FA) 대어 허웅, 이승현을 영입했던 KCC는 1라운드에서 3승6패로 부진하며 기대이하의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날 2라운드 첫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다. 1라운드 DB전 패배도 설욕했다.

KCC는 4승6패로 단독 7위에 올랐다. 공동 2위였던 DB(6승4패)는 서울 삼성과 공동 3위다.

KCC의 라건아가 21점 21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을 기록, 승리의 중심에 섰다. /뉴시스

익산고 검도부, 추계 전국 중 · 고교 대회서 단체전 2위

결승전서 경기 과천고와 접전 끝 0-2로 아쉽게 패해… 은메달 차지

검도 명문인 익산고등학교(교장 이평호) 검도부가 전국대회에서 값진 은메달을 획득했다.

전라북도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최근 경남 하동에서 열린 제39회 추계 전국 중·고등학교 검도대회에서 익산고 검도부가 단체전 준우승을 차지했다.

예선리그에서 3전 전승을 거두며 조1위로 본선에 진출한 익산고 검도부는 기세를 몰아 16강(3대0)과 8강(3대2), 준결승(4대1) 경기도 잇따라 승리를 거두며 결승에 진출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결승전에서 만난 경기 과천고에게 접전 끝에 0대2로 패하면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익산고 검도부 김대현 감독은 "많은 경기를 치르면서 체력적,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을텐데 최선을 다해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프로배구 올스타전, 김연경 홈구장서

내년 1월 29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 개최로 확정
배구연맹, 운영 대행업체 모집… 기획 등 업무 대행

프로배구 올스타전 개최 장소가 흥국생명 홈구장인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으로 정해졌다. 한국배구연맹은 지난 11일 "도드람 2022~2023 V-리그는 2023년 1월 29일 흥국생명의 홈 경기장인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개최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맹은 V-리그 올스타전 운영 대행업체를 모집한다.

주요 입찰 참여 자격은 입찰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단일 계약 건 수주금액 1억원(VAT별도) 이상 스포츠 이벤트 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다.

선정된 업체는 올스타전 행사 기획, 연출과 함께 올스타전 전용 디자인, 이벤트, 사전 홍보, 사회공헌 프로모션 등 업무를 대행한다. /뉴시스